

# 「溪西野譚」의 書誌的 研究

— 「溪西雜錄」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

金 相 助\*

## 目 次

- |                       |
|-----------------------|
| I. 序 論                |
| II. 本 論               |
| 1. 「溪西野譚」의 異本考        |
| 2. 「溪西野譚」과 「溪西雜錄」의 關係 |
| III. 結 論              |

## I. 序 論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溪西野譚」(이하 「야담」으로 줄임) 편저자는 누구에 의하여 쓰여졌는지 모르는 짚막한 서문에서 溪西가 李義準의 호라고 한<sup>1)</sup> 이래 별 의심 없이 이 회준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이 「야담」은 「溪西雜錄」(이하 「잡록」으로 줄임)과 동일한 책으로 받아들여졌다.<sup>2)</sup> 최근에 계서가 이회준이 아니라 그의 형 義平이며, 회평은 「溪西雜錄」(이하 「잡록」으로 줄임)을 쓰고 또 이를 증보하여 「야담」도 썼다고 주장이 제기되었다.<sup>3)</sup> 이것은 야담의 연구에서 하나의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내려진 것이 아니다. 단지 「溪西野譚」과 「溪西雜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溪西라는 같은 당호로부터 이들이 같은 편저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책이라는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 「溪西野譚」韓國文獻說話全集(이하 「全集」으로 줄임), 권1, P.3 溪西者 尚書義準之堂號也

2) 金基東(「야담」의 해제, 「전집」 권1, P.1)은 「야담」의 이본 검토에서 「계서잡록」의 이본을 「야담」이 본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조희용(「朝鮮後期 文獻說話의 研究」 PP. 17-18)도 이와 같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3) 李賢澤, 「溪西李義平文學研究」, 研究論叢 제17輯, 國民大學校 國語國文學硏究會, 1983.

결론을 내린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책들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이들을 같은 책으로 보거나 동일 편저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현택의 주장은 「야담」의 편자가 아니라 「잡록」의 편자가 이희준이 아니라 이희평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데 지나지 않는 셈이다.

그렇다면 「야담」과 「잡록」은 어떤 관계인가.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야담」과 「잡록」의 편저자가 동일인인지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잡록」에서 편저자인 李羲平이 그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을 지칭하는 방식과 「야담」에서의 그것을 비교해보자 한다. 둘째는 「잡록」에는 없고 「야담」에만 있는 이야기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記聞叢話」와 비교하여 이들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필자는 「잡록」과 「야담」이 다른 이름을 가진 동일 책인지 서로가 다른 책인지 다르다면 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本 論

「잡록」과 「야담」이 동일한 책인지 또는 「야담」이 「잡록」을 모태로 하여 쓰여진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려면 먼저 「잡록」의 이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4)</sup> 「잡록」의 이본으로 필자가 검토한 것은 모두 8종이다. 이들은 4개의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成大本, 둘째 一夢本群, 셋째 藏書閣本群, 넷째는 高大本이다. 그러면 이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 1. 「溪西雜錄」의 異本考

#### 1) 成大本

이 책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1책으로 牧隱 李穡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총 78화가 단정한 해서체로 수록되어 있는데,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계서 이희평의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서의 선친인 태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들은 또한 계서가 자신의 선친을 추모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쓴 「過庭錄」<sup>5)</sup>에도 실려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타의 이본에서

4) 이 경우 「야담」의 이본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야담」의 이본 중에서 필자가 검토한 것은 규장각본과 연대본의 두종이 있는데, 연대본은 규장각본과 내용상의 다른 점은 없고 편차만 다르며, 게다가 낙질본이어서 생략하기로 한다. 이현택에 의하면 이 밖에도 淸成高本(1책)과 日本 天理大에 今西龍本(零本4책)이 있다 하나(이현택, 앞의 글 P.32), 보성고본은 확인 결과 찾아볼 수 없었으며, 今西龍本은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차후로 보충하기로 한다.

5) 「과정록」에 대해서는 이현택의 앞의 글을 참고할 것

는 한편도 찾아볼 수 없고 「야담」에만 8편이 나온다.<sup>6)</sup>

이 책에는 두 개의 서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회평의 자서이고 다른 하나는 小楠 沈能淑의 것이다. 여러 이본 중에 서문이 있는 것은 이 책이 유일하다. 이 서문은 「잡록」에 대하여 몇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계서의 자서를 보면 「잡록」은 黃鼠 暮春에 南昌府 竹裏館에서 썼으며, 그 내용은 평소 견문한 것 중에서 '家間事蹟'과 '기타 前輩들이 세상에서 행하였던 고담'의 두 종류라고 하고 '옛 사람들이 한가함을 보내고 줄음을 좇기 위하여 쓴 책을 모방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성대본은 「잡록」중에서 '가간사적'만을 모아 놓은 셈이다.

소남의 서문은 그의 문집에도 실려 있는데<sup>7)</sup>이 두 기록을 비교해 보면 한 두개의 글자를 제외하고는 일치한다.<sup>8)</sup> 여기에는 이 글을 癸巳年(1833: 純祖 33) 명춘에 썼다고 밝히고 있다. 소남은 계서가 이야기를 잘하며 문재가 있어서 牧隱으로부터 근세의 여러 사람에 이르기까지 후세에 전할만 한 것을 모아 4책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많은 필기 또는 폐설이 허탄하거나 비리하지 않으면 불경스럽거나 잡박한데 비하여 이 「잡록」은 그렇지 않아서 야승의 빠진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 계서가 歌謠와 俗樂府에 능하여 그의 「完府別曲」이 남쪽 지방에 널리 퍼졌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요와 속악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완부별곡」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통 한시가 아닌 시조나 민간의 가요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계서가 정통 한문이 아니라 古談을 모아 「잡록」을 엮은 행위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서가 「잡록」과 같은 책을 쓴 것이 우연이 아니라 민간의 가요나 이야기를 즐겼으며 이들을 책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이상의 몇가지 점에서 볼 때 이 성대본은 「잡록」의 원본이거나 원본을 직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一夢本群

일몽본과 연대 A본, 가람 A본(68장본), 연대B본(98장본)이 여기에 속한다. 이 계열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야담」권4 제9화에서 시작되어 권5의 전반부에 걸쳐 있는 이야기들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일몽본과 연대 A본, 가람A본과 연대B본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이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검토한다.

6) 이 이야기들은 「잡록」과 「야담」이 같은 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귀중한 단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7) 「後吾知可」 후손가장본 권5, 「溪西雜錄序」

8) 단지 성대본 「잡록」의 마지막에 있는 '歲癸巳孟春 小楠居士沈能淑英叟序'라고 하는 기록이 문집에는 없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몽본 연대A본 : 일몽본은 義平의 季氏 義鞏의 五代孫인 一夢 李仲珪翁이 南原郡 雲峯에서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현택에 의하여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되었다.<sup>9)</sup> 연대 A본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 31장본이다. 이 두 본은 수록된 이야기가 거의 일치한다.<sup>10)</sup>

일몽본은 책의 앞 표지 우측 상단에는 새로로 '丙寅否月'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해는 필사년대로 추정된다. 이 추측이 맞다면 이 해는 1866년이 될 것이다.<sup>11)</sup> 그렇다면 이것은 원제가 이루어진 지 30여년만에 벌써 전라도 남원에까지 전파되었다는 말이 된다. 조선 후기에 야담집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조선 후기의 식자들 사이에서 야담은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첫장에는 '溪西雜錄卷之二' 라고 쓰여 있어서 이 책이 낙질본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뒷표지 안쪽에는 '壬午(1942)九月二三日加衣' '於雲峰' '一夢'이 차례로 행이 바뀌면서 새로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일몽이 책을 구입한 때와 장소를 기록한 것이다. (소장자의 증언)

연대본은 '溪西雜錄'이라고만 되어 있고 권차 표시가 없이 모두 42화가 수록되어 있어서 이 책을 필사하는데 사용한 모본이 원래 단권본인지 또는 필사자가 발췌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총 43화가 실려 있는데 이 중에서 30편의 이야기가 '야담'에 수록되어 있다.

이 두 종의 필사자는 한산이씨 집안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제11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것은 石樓 李慶全의 문재가 뛰어났다는 이야기다. 여기에서는 이희평과 同宗인 이경전이 '李石樓 慶全 卽鵝溪之子'라고 소개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의 호로만 일컬어지고 있다. 또한 李山海도 단지 그의 호 鵝溪로만 지칭되고 있다. 이러한 지칭방식은 윗사람의 이름을 휘하는 예법이나 조선 후기의 강한 가문의식을 생각해볼 때 同宗의 선대 인물을 기록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9) 이현택은 이 책에 대하여 일몽이 『溪西雜錄』 卷二와 『過庭錄』 己未本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고 (앞의 글 P.9) 또 '1942년에 소장자(일몽-필자주)가 권1과 함께 입수하였는데 卷1은 분실되고 卷2만 남아있다. 이 권2는 李義平의 五代宗孫 復珪가 筆寫하여 現在 그 아들 德求가 소장하고 있다.' (P.32)고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一夢 李仲珪翁을 만나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그가 남원군 운봉에서 두책을 입수하였으며 그중에 권1은 분실되고 권2는 복규씨의 필사본이 아니라 구입 당시의 원본을 덩이가 아니라 일몽이 소장하고 있었다.

10) 자세히 비교하면 연대A본 제28화(『야담』 권4의 제25화)가 일몽본에는 없고, 연대본에 없는 이야기 두편(『야담』 권5의 제3화, 4화)이 일몽본 끝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일몽본에는 총 43화 연대본에는 42화가 실려 있다.

11) 1833년 (소남의 『잡록』이 쓰여진 해로 이 해를 『잡록』의 완성 연대로 볼 수 있다.) 이후 병인년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해는 1866년과 1926년인데, 이 중에서 제17화의 '癸亥 李廷平諸人 將謀舉義 具 義城仁靈亦預 而時在朴燦幕下 一日告辭 朴燦張以紅氈三十駄…… 反正時 仁廟之軍 (이 부분은 '之 反正時仁廟軍'으로 되어 있는데 '之'옆에는 줄이 그어져 있고, 廟'와 軍' 사이에는 원점을 그려 고친 흔적이 있으며 같은 제열인 가람 A본에 위와 같이 쓰여져 있어서 이에 따라 고친다.) 無以區別 以其紅氈 作氈笠而着之 今之紅氈笠 卽其制也'의 기록을 보면 1926년에 조선조의 武服이었던 氈笠을 '今之紅氈' 운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866년으로 추정한다.

가람A본 연대B본: 가람 A본은 서울대학교 도서관 가람문고에 수장되어 있는 68장본이다. 겹표지나 속표지 모두 권차 표시가 없이 총 77화가 상당히 세련된 초서체로 쓰여져 있다. 각 이야기의 시작 부분은 붓뚜껑으로 찍은 듯이 보이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으며, 몇군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행에 비하여 한글자가 위로 올라가 있다.

연대B본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98장본으로 76화가 수록되어 있다. 첫장에 '溪西雜錄 卷三'이라고 쓰여 있어서 낙질본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심능숙의 서문에 의하면 「잡록」은 4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는데 현전하는 모든 「잡록」의 이본 중에서 권차가 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책이 유일하다.

이 두 책의 전반부(43화까지)는 위에서 검토한 일몽본과 이야기의 내용은 물론 배열 순서도 몇 개 보태진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같다. 그리고 후반부는 일몽본이나 연대A본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야담」과 비교해 보면 권 2·3·5에 산재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놓고 보면 이 두 책은 필사 모본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제11화의 주인공인 이경전이나 이산해를 일몽본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비하여 후반부에서는 집안 인물을 표기하는 방식이 성대본과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12)</sup>

### 3) 藏西閣本群

장서각본, 가람B본(51장본), 鄭明基本이 여기에 속한다. 이 계열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가 「야담」 권3과 권4의 앞 부분에 실려있는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에서 장서각본은 표지에 '溪西雜錄', 첫장에 '溪西雜錄 續 卷之單'이라고 쓰여있고 총 22화가 수록되어 있다. 가람본은 겹 표지좌측에 세로로 '溪西雜錄 單'이라고 해서 쓰여져 있고 안쪽에도 우측에 세로로 똑같이 쓰여 있는데 첫장 첫줄에는 '溪西雜錄 續 卷之初'라고 되어 있어 표지와 다르다. 총 19화가 수록되어 있다. 두 책 모두 「잡록」의 '續'이라고 하는 것이 이채롭다. 여기에 수록된 이야기는 18화까지는 「야담」 권3 제4화에서부터 권4의 3화의 이야기와 같은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단 권3의 제13화는 빠졌다.) 그리고 제19화 이하는 정명기본에 나온다.

정명기본은 그가 엮은 『韓國野談資料集成』 권 5에 고대본과 함께 실려 소개되는데, 첫장에 '溪西雜錄 卷之四'라고 쓰여져 있고 위의 장서각본과 연대본에 나오는 이야기를 포함하여 총 30화가 실려 있다. 현전하는 「잡록」중에서 권차가 四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책이 유일하다. 장서각본이나 가람본과 비교하여 보면 19화까지는 장서각본이나 가람본과 같고<sup>13)</sup> 그 뒤에 11화가 더 있는데 이중 6화는 「야담」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12) 이것은 59화와 76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들은 「야담」에서 각각 6권 제4화, 3권 제2화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검토될 것이다.

13) 제10화만 장서각본이나 가람본에 없고 나머지는 순서도 같다.

이들 2군과 3군 사이에는 중복되는 이야기가 한편도 없다. 이것은 이 두 부류가 처음부터 별개의 책으로 묶여 있었다는 증거로 생각된다.

#### 8) 高大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2권과 補遺로 이루어져 있는 2책본이다. 권1에 64화, 권2에 37화, 보유에 36화로 총 137화에 이르러 여러 이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관 상태도 대단히 양호하며 누구에 의해서인지 잘못된 부분이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고 글씨도 대단히 잘 써져 있다.

이 고대본은 「잡록」의 이본 중에서 특이한 몇가지 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 다른 이본들과 비교해 볼 때 이야기의 배열 순서가 매우 특이하다는 점이다. 여타의 이본들은 같은 계열끼리는 순서가 같고 「야담」과 비교해 보아도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고대본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다른 이본이나 「야담」과 비교해 보면 흐트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야기 배열 순서만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군과 3군 사이에는 한편의 이야기도 중복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비하여 이 고대본에는 2군과 3군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섞여 나오는 것이다.<sup>14)</sup>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다른 이본에는 없고 고대본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다는 점이다.<sup>15)</sup> 이러한 점들은 고대본이 「잡록」의 이본 중에서 늦게 만들어진 증거로 생각된다.

이 고대본의 필사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계서 집안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도 어떤 때는 집안 사람임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다른 집안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과 똑같이 나타내 놓고 있어 필사자가 한산이씨가 아니라는 추측은 할 수 있다. (이점은 뒤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이상으로 「잡록」의 이본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소남이 서문에서 「잡록」이 4책으로 이루어졌다고 한 데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家間事蹟」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성대본은 처음부터 따로 1책으로 묶여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정명 기본도 표시된 대로 권4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2권 3권이 어느 것인가 하는 점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연대B 본에 권3이라고 쓰여 있는 점이다. 그런데 이 연대본을 권3으로만 보기에겐 권4와 비교하여 볼 때 양적으로 거의 2배에 이른다.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연대본의 필사 모본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르다고 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연대본은

14) 그것도 2군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들끼리, 3군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들끼리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섞여 나온다.

15) 이 고대본 「잡록」에는 여타의 이본에 없는 이야기들이 거의 반에 이르는 64편이나 나오는데 이 64편 중에서 「야담」에도 없는 이야기가 25편이나 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야담」에 없는 이야기는 총 41편에 이른다. 이것은 이 고대본이 여타의 이본에 비하여 침삭이 매우 심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라 하겠다.

2권 3권의 합본이라고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대본 「잡록」은 제서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리고 시기적으로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 2. 「溪西野譚」과 「溪西雜錄」의 관계

그러면 다음으로 「잡록」과 「야담」이 같은 책인지 또는 이회평이 「잡록」을 짓고 나중에 이를 증보 수정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중에서 전자의 주장은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현택이 「溪西野譚」의 편저자가 李羲準이 아니라 李羲平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간단히 살펴보면 (1) 韓山 李氏 집안의 주장과 이에 따른 「韓山文獻叢書」의 기록,<sup>16)</sup> (2) 이회평이 지은 「過庭錄」의 기록<sup>17)</sup> (3) 「야담」 권5의 49화에 나오는 '賤臣'이 지은 시가 이회평이 지은 「華城日記」에 수록된 이회평의 시와 같다는 점<sup>18)</sup>이다. 그러면서 그는 규장각본 「야담」이 자필본이 아니며 「야담」의 편저자는 이회평이라고 단언한다.<sup>19)</sup>

그러나 「야담」의 편저자가 이회평이라는 데에 수긍하기 어려운 몇 가지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다. 이를 하나 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溪西의 집안 인물 표기 양식

맨 먼저 살펴볼 것은 계서 집안 인물을 나타내는 말이다. 계서와의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무시하고 「야담」에 나오는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三山 李台重 : 권1의 제1화는 逸齋 李彦世의 강직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성격이 강직했기 때문에 친구를 두명밖에 사귀지 못하였는데 이들은 '三山之族大夫'와 '尹臨齋心衡'이다.

이 이야기에서 두사람을 거명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윤심형은 성, 호, 이름의 순서로 쓰고 있다. 이것은 「야담」에서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주인공을 소개할 때 쓰이는 보편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삼산지족대부'는 성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신 호와 필자와의 관계만을 쓰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양권에서는 옛날부터 이름을 신성시하여 諱하는 관습이 있었다. 「야담」의 편저자가 한 집안 인물인 삼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호와 자신의 관계를 나타내는 족대부만으로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관습에 따른 것이다.

「야담」에는 삼산이라는 호를 쓰고 있는 인물의 이야기가 두편 실려 있는데 권5의 제18화와 19화다. 18화는 三山이 임금의 뜻을 거슬러 甲山府에 出補되어 樂民樓에서 朴文秀와 당색적 논쟁을

16) 이현택, 앞의 글 PP.8-11.

17) 앞의 글 PP.11-14.

18) 앞의 글 PP.17-21.

19) 앞의 글 P.14.

별인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삼산지족대부’가 아니라 ‘李三山台重’라고 하여 삼산이 곧 이태증임을 밝혀 놓았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삼산이 족대부가 아니라 다른 집안 사람인 ‘윤임 재심형’과 같은 양식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19화는 삼산이 中和任 李仁綱을 罷黜시킨 이야기다. 삼산이 평안감사가 되었을 때 영조의 외가쪽 인물인 崔鎭海가 宜川府使, 사도세자의 외가쪽 인물인 李仁綱이 中和任이었다. 삼산은 이들이 字牧官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최진해는 선친부사라고 대답하였으나, 이인강은 중화임이 아니라 顯隆園의 外家라고 하자 그를 파직시킨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삼산은 단지 ‘三山’으로만 일컬어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앞의 이야기에서 이태증임을 밝혔기 때문에 다시 소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볼 때 『야담』에서 삼산에 대한 호칭은 일관성이 없다. 즉 어떤 때는 ‘족대부’고 또 어떤 때는 ‘이삼산태증’ 또는 단순히 ‘삼산’이 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이삼산태증’ 또는 ‘삼산’은 같은 집안의 선대 인물을 거론하는 태도는 아니다. 이것을 『잡록』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야담』 권5의 두 이야기는 성대본 『잡록』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族大夫三山判書公諱台重’(제9화), ‘三山族大夫判書公’(제13화)이라고 되어 있다. 성대본에는 이밖에도 삼산에 대한 이야기가 한편 더 있는데(제10화) 여기에서는 ‘三山公’이라고 칭하고 있다.

성대본 『잡록』 소재의 78화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소개되는 인물은 그의 부친으로 총 34화에 이른다. 이에 반한다면 삼산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3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중에서 하나(제13화)만이 『야담』에 빠져 있다. 다시 말하면 부친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선친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과정록』을 쓰고, 『잡록』에도 그중에서 34화나 수록하였던 계서가 『잡록』을 쓰고 그것을 부연하여 『야담』을 썼다면, 그 과정에서 부친에 대한 이야기는 한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빼버리고 삼산의 이야기를 이처럼 알뜰히 거두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성대본 『잡록』에서 계서는 그의 집안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몇가지 틀에 따라 소개한다. 즉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대체적으로) 주인공에 대하여 자신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아버지는 府君 先府君 또는 先君子로, 그 윗대는 祖考 王考 高王考로 칭하고, 그밖의 자신의 직계 선조는 처음 소개할 때 자신과의 관계, 대표되는 관직의 순으로 쓰고 다음부터는 ‘公’ 또는 대표관직에 ‘공’을 붙여 나타낸다. 직계가 아닐 때는 족대부 호, 또는 시호 대표 관직위의 순서나 호 족대부 대표관직의 순서로 쓰고 다음부터는 ‘공’이라고 칭하고 있다.<sup>20)</sup> 이렇게 보았을 때 『야담』은 계서가 『잡록』을 쓰고 이를 부연하여 이루어 놓은 책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것도 한산이

20) 예를 들면 ‘從曾大夫文淸公諱乘泰氏’, ‘族大夫三山判書公諱台重氏’, ‘族大夫華重氏’ 등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개 諱 다음에는 ‘氏’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庶系 인물에 대해서는 ‘庶曾大夫萬戶乘晉’이라 하여 ‘氏’를 생략하였다. 그러나 토정 이지함만은 예외적으로 ‘土亭諱之藺 九代祖考之弟’라고 하였다.



씨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sup>21)</sup>

2. 文淸公 李乘泰 : 권2의 37화는 李乘泰가 암행어사로 東峽을 순행하다가 어느 읍에서 기생에게 혹하여 모친과 부인을 박대한 이방을 치죄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서 이병태는 '李文淸公乘泰'로 되어 있다.<sup>22)</sup> 이 이야기는 성대본 「잡록」에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성이 생략되고 '文淸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권5의 17화에서는 문청공의 경상감사시 선치에 대하여 몇가지 에피소드를 모아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잡록」에서와 같이 문청공이라고 하고 있다.

이병태에 대한 이야기는 권5의 제 16화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병태의 청렴에 대한 이야기다. 이병태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숙부의 양육을 받았다. 副學 때 감사공이 평양감사로 있으면서 병에 걸리자 문병차 평양에 갔는데, 그는 평양시 사는 집이 발을 개고 앉을 수 없고 입는 옷이 몸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청렴하였기 때문에 이웃에서 말과 노비를 빌려 타고 갔다. 그러나 중간에 말이 죽어 걸어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 모습을 본 감사공이 누추한 부장을 하여 조정을 욕되게 하였다고 꾸증을 하였다. 이 이야기는 '李文淸公乘泰 監司 之侄也'<sup>23)</sup>로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성대본에도 나오는데 위의 인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從曾大夫文淸公諱乘泰氏 高祖考監司公之侄子也'<sup>24)</sup>라고 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을 비교해보면 「잡록」은 기록자와 이야기 대상 인물이 한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자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한다. 앞에서 살펴본듯이 이것은 「잡록」에서 제서가 자신의 집안 어른들을 소개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에 비한다면 「야담」에서는 남의 집안 사람을 소개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도 「야담」의 기록자가 「잡록」에서 이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고친 결과다.

3. 李濼 : 그러나 위 이야기에서 보다 더 주목할 것은 '監司 之侄也'라고 하여 글자 두자 정도의 빈 칸을 두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잡록」에는 감사 아무개가 아니라 '高祖考監司公'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감사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선조의 이름을 휘하는 관습상 고조의 이름을 직필하기가 불가능하기도 하였겠지만 필자의 고조라는 점에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의 高祖考監司公이 누구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권6의 제4화는 '李監司濼 致祭時' 張武肅公鵬翼이 대청에서 자리에 기대고 담배를 피우자 俞拓基가 武相이 무례하다고 꾸짖은 이야기

21) 그렇다면 권1의 1화에서 '삼산지족대부'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점은 이 이야기를 포함하여 다음에 거론되는 모든 이야기에 해당 하지만, 「야담」에서 「잡록」소재의 이야기를 전제하면서도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제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된 인물은 모두가 姓, 號, 이름의 순서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것은 모두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22) 이병태의 시호는 文淸公이 아니라 文淸公이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야담」이 이 제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병태의 시호를 이렇게 잘못 기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23) 「전집」 권1, p.389.

24) 성대본 「잡록」 제22화.

이다. 이 이야기는 고대본(권1, 44화)과 가람A본(59화) 「잡록」에도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가 ‘高王考致祭時’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잡록」저자의 고조고 감사공은 李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빈칸으로 남겨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이것은 「야담」의 편자가 「잡록」에서 이 이야기를 전재하면서 계서의 고조고가 누구인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다.

4. 李泰永: 李泰永은 계서의 생부다. 계서는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특히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친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 「過庭錄」을 짓고, 일부는 ‘가간사적’에 해당하는 성대본 「잡록」에도 수록하였다. 그러나 「야담」에는 이태영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편밖에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권2의 38화다.

이 이야기는 中和縣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처리한 이야기다. 즉 어느 金哥가 族侄婦의 방에 들어갔다가 그녀에게서 피살당하였다. 조사가 진행되자 그녀는 김가가 자신을 겁탈하려 하여 살해하였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리 담당자인 ‘府君’은 죽은 자의 말을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편의 말만으로 그를 敗倫之罪人으로 만드는 것은 ‘仁之君子之心’이 아니라고 하였다.<sup>25)</sup>

이 이야기는 계서가 지은 「과정록」과 성대본 「잡록」에 그의 선친 이태영의 행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야담」에 그대로 전재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담」의 편저자는 「잡록」의 편저자인 계서의 부군을 누군인지 밝히지 않고 「잡록」에 나오는 대로 ‘부군’이라고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담」에서는 누군인지 모르는 ‘부군’이 어떻게 하여 중화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판결을 할 수 있었는지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이에 비한다면 「과정록」이나 「잡록」은 그 바로 앞에 이태영이 황해감사로 부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이와 같은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그의 선친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 「과정록」을 쓰고 「잡록」에도 이 중에서 30여편이나 수록한 계서가 「잡록」을 증보하여 「야담」을 엮었다면 왜 「야담」에 겨우 한편의 이야기만을 수록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도 「야담」의 편저자가 계서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계서의 부친 이태영에 대하여 하나 더 살펴보자. 권32의 제2화는 이태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趙顯命의 집에 있던 從 禹六不에 대한 이야기다. 우육불은 매우 우직하고 술을 좋아 했다. 또한 색을 좋아하여 莫大라는 노비를 첩으로 삼았다. 「야담」에서는 이 막대를 ‘李參判泰永家 有婢莫大者’<sup>25)</sup>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가람A본(제76화)이나 연대B본 「잡록」에도 나오는데 (제75화) 여기에는 ‘吾家婢莫大者 曾祖妣媾前婢也’라고 되어 있다. 즉 「야담」에 나오는 이태영은 바로 계서의 아버지인 것이다. 따라서 「야담」을 이회평이 편찬한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李參判泰永’으로 기록했다는

25) 「전집」 권1 P.187.

말이 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sup>26)</sup> 결국 계서가 아닌 「야담」의 편찬자가 「잡록」에서 이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고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5. 土亭 李之菡: 권5의 제14화는 토정 이지함의 도술에 대한 이야기다. 「야담」에서 토정에 대한 소개는 단순하게 ‘李土亭之菡’ 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야담」 전체에 걸쳐서 인물을 소개하면서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즉 집안의 선조라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잡록」에서는 ‘土亭諱之菡九代祖考之弟也’ 라고 하고 있다. 이것도 「야담」의 편자가 「잡록」 소재의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고친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두 기록 사이에는 이야기의 서술 태도에서도 주목할만 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잡록」에서 양식이 떨어지자 토정의 부인이 ‘사람들이 모두 군자께서 신이한 도술이 있다고 하더이다. 이제 보니 양식이 떨어져 밥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어찌 시험삼아 신술을 행하여 이 급한 것은 구하려 하지 아니 하십니까? 하면서<sup>27)</sup> 도술로 양식을 마련해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토정은 ‘부인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내 마땅히 조금 시험해보리다.’<sup>28)</sup> 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도술을 행한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은 토정의 뛰어난 도술이나, 이야기의 서술 태도는 사대부 부부 사이에서 풍기는 절제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야담」은 이와 다르다. 즉 부인의 이와 같은 부탁을 받은 토정은 ‘비록 신술이 있다 하더라도 천기는 누설할 수가 없으니 욕심을 부려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죄가 막대합니다.’<sup>29)</sup>고 하면서 사양을 하다가 부인의 반복되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나서야 마지 못하여 신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야기의 짜임새와 재미를 의식하면서 꾸며진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야담」의 편저자는 「잡록」에서 이 이야기를 가져 오면서 집안의 사적을 적는 태도가 아니라 이야기의 재미를 의식하면서 개변시키고 있는 것이다.

6. 李慶流: 「야담」 권5의 제15화는 임란 때 전사한 이경류의 이야기다. 즉 이경류는 임진왜란 시 좌랑공으로 종군하였다가 전사하였는데 집안에 일이 있을때마다 그의 혼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성대본 「잡록」 제3화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李公慶流’가 아니라 ‘七代祖考佐郎公’의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칠대조고좌랑공’이 ‘이공경류’로 고쳐진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이 밖에도 계서의 선조의 지칭이 계서의 집안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쳐진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

及大祥時…… 六代祖考副使公 年四歲矣 公撫而嗟歎曰 此兒必登第 而不幸當不幸時 然 伊時 吾當  
更來 仍出門 伊後 更無形影…… 光海朝 六代祖考 登第 謁廟之時 自空中 號新恩進退 人皆異之…

26) 설사 여기에서의 이태영이 계서의 선친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李參判泰永’ 운운할 수는 없다.

27) 「잡록」(성대본) 제2화 人皆稱君子有神異之術云 見今乏糧將絕火矣 何不試神術而救此急也

28) 위와 같은 곳 夫人之言 既如此 五當少試之矣

29) 「전집」 P.386, 雖有神術 天機不可漏泄 人慾不可妄肆 若如是 則罪莫大焉

… 八代祖妣 常有病患…… 喉渴思橋 若得輿 則病可解矣 無由得橋 數日後 空中有號兄之聲 伯氏公  
下庭仰視 則雲霧中 二三橋投之…… 以橋進之 病患即差<sup>30)</sup>(인용자 밑줄)

죽은 이경류의 혼이 그의 어린 아들을 염려하고 병든 모친을 구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중에서 밑줄 친 사람은 모두 계서의 선조로 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나타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야담」에는

公子副使公…… 光海朝 公之子登第……. 公之母親…… 伯氏公……. <sup>31)</sup>

으로 고쳐져 있다. 이 두 기록을 비교해 보아도 「야담」이 후손인 계서에 의하여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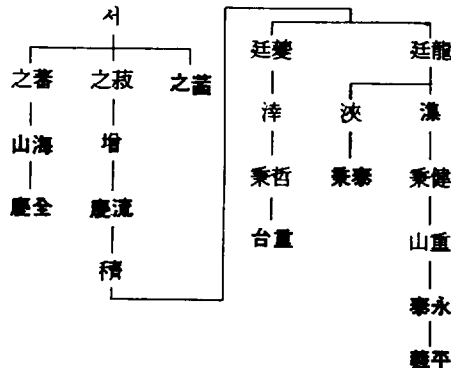
호칭 말고 이야기의 선택에서도 문제는 발견된다. 계서가 그의 자서에서 밝혀 놓았듯이 「잡록」은 ‘家間事蹟’과 ‘전배들이 세상에서 행한 고담’이다. 이중에서 가간사적은 이본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총 87화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계서의 선친 이태영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비한다면 ‘야담’은 계서가 「잡록」을 증보하였다고 하기에는 가간사적이 너무 적은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즉 이지함 1편, 이경류 1편, 이병태 3편, 이태중 2편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서의 부친인 이태영에 대한 이야기가 한편 등 총 8편에 불과하다. 이것은 가간사적이 아닌 전배들의 고담이 거의 다 수습되어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이중에서도 계서의 직계 선조에 대한 이야기는 겨우 2편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계서의 방계인 이병태나 이태중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도 「야담」을 계서의 저작으로 볼 수 없는 한 증거가 될 것이다. <sup>32)</sup>

30) 「잡록」(성대본)3화

31) 「전집」 권1 PP.387-389.

32) 참고로 지금까지 논의된 계서의 집안 인물들과 계서와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 「야담」에만 있는 이야기의 「기문총화」와의 비교

이상에서는 우리는 「야담」이 계서에 의하여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필사자가 계서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잡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야담」에만 실려 있는 이야기를 「기문총화」(이하 「총화」로 줄임) 소재의 것들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sup>33)</sup> 이러한 이야기는 상당한 양에 이른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1의 23화부터 끝까지와 권2의 1화부터 10화까지, 권5의 제20화부터 45화까지와 51화부터 끝까지 그리고 권6의 7화부터 끝까지는 「잡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권1의 1화에서부터 22화까지는 비교적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고대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고, 다른 이본에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양적으로 이들은 거의 반에 육박한다.

그런데 이들을 「총화」와 비교하여 보면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sup>33)</sup> 그것은 첫째 「야담」 권1과 권2의 10화까지가 「총화」 권2의 18화부터 78화까지로 연결되어 있으며,<sup>34)</sup> 둘째는 「총화」 권1에는 권6의 제7화부터 끝까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 그 뒤를 이어 권5의 21화부터 44화까지가 순서도 「야담」과 같게 실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야담」은 「잡록」보다는 「총화」와 더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들을 「잡록」 소재의 이야기들과 비교하여 보면 이야기의 형태가 동일인의 손에 의하여 한 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 이 이야기들의 형태상의 특징은 대부분이 逸話라는 점이다. 특히 권6의 제7화부터 끝까지는 이야기의 길어도 몹시 짧다. 이것은 「잡록」 소재의 「전배들의 고담」이 일화적이기보다는 주로 둘 이상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상황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여준다.

또 이 중에서(권5의 제21화, 22화, 23화를 포함하여) 권6에는 출전을 밝혀놓은 이야기가 100편 가까이 된다. 이 출전은 상당히 폭이 넓어서 30여종에 이르는데 이것도 「잡록」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체제인 것이다.

또 하나 흥미를 끄는 것은 「총화」 권1에는 실려 있으나 「야담」 권5와 권6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다. 이들은 총 182화 중 25화에 이르는데 「야담」의 편자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이 이야기들을 빼버렸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총화」에서 출전이 「於野談」으로 밝혀져 있는 11편의 이야기가 모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야담」에는 이야기를 따 왔다고 밝혀진 원전이 30여종에 이르는데, 이 중에는 「어우야담」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우야담」 소재의 이야기라도 「총화」에서 원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빠뜨리지 않고 있다.<sup>35)</sup>

33) 「총화」의 이본에 대한 검토는 본고에서는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연세대 도서관 소장의 4권4책본과 대조한다. 그것은 뒤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지겠지만 이 4책본이 「야담」과 「총화」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이라도 「총화」의 이본 검토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4) 이 중에서 「야담」의 권1 15,16화는 「총화」에 실려 있지 않다.

35) 「총화」 권2의 제69화(「야담」 권6의 제65화)가 바로 그런 예다.

이것은 「야담」의 편저자가 「총화」를 텍스트로 삼아 일부의 이야기를 침삭한 명확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sup>36)</sup>

이상에서 볼 때 「야담」은 「야담」을 증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화」를 모본으로 하여 일부 이야기를 침삭하였다고 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 Ⅲ. 結 論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이현택은 규장각본 「야담」은 한 사람에 의하여 필사된 것이 아니라고 한 바 있는데 이 점은 「야담」 각권의 필체가 다르다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야담」은 계서가 「잡록」의 이야기를 증보하여 이루어 놓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야담」이 계서에 의하여 기록되었다고 하기에는 그의 선조에 대하여 어떤 때는 자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는가 하면 다른 집안 사람들을 소개할 때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권 6의 체제가 「잡록」과 너무도 다르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야담」이 계서에 의하여 기록되었다고 하기에는 그의 선조에 대하여 어떤 때는 자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는가 하면 다른 집안 사람들을 소개할 때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권 6의 체제가 「잡록」과 너무도 다르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상 「잡록」과 「야담」을 비교하여 검토해본 결과 「야담」은 계서가 「잡록」을 증보하여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며, 같은 책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총화」와 비교하여 보면 「야담」은 「총화」를 모본으로 하여 일부 이야기를 침삭하여 이루어 놓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야담」은 누구에 의하여 언제 이루어졌으며 「잡록」과는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점인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일단 미상으로 둘 수 밖에 없다. 단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규장각본 「야담」은 여러 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어 합본된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sup>37)</sup>

36) 「어우야담」 말고도 「총화」에서 출전을 밝히지 않은 이야기를 「야담」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원일 아침에는 도소주를 마시는 풍속이 있다는 「야담」 권6의 제109화는 「遺聞雜錄」의 기록 그대로인데, 「총화」(권6 123화)에서 밝혀놓지 않은 것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37) 이러한 추측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계서 집안 사람들의 소개 양식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말고도 각권(또는 같은 군 안에서도)의 필체가 다르고, 특히 규장각본의 각권 제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권1, 2, 3, 4, 6은 「漢西雜錄」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하여 유독 권5는 「漢西漫譚」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Summary

## A Biographical Study on Kyesu-Yadam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lation with Kyesu-Jamnok

*Kim Sang-jo*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Kyesu-Yadam(溪西野譚) and Kyesu-Jamnok (溪西雜錄) are the same book or not. There is no enough evidence that Kyesu-Yadam has been written by Kyesu. and Kyesu-Yadam and Kyesujamnok look like two distinct books to me. The evidences are come from those facts.

- 1) He goes against etiquette when he indicates his ancestors in the Kyesu-Yadam
- 2) About half of the stories covered in the Kyesu-Yadam are not found in the Kyesu-Jamnok.
- 3) The structure of the stories with are covered in Vol.6 of the Kyesu-Yadam is totally distinctive from that of the Kyesu-Jamnok.

Comparing the Kyesu-Yadam to Kimmunchonghwa (記聞叢話), the former is rather based on the latter in a way of the stories being added or dropped than based on Kyesu-Jamnok.